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공일자	2009. 12. 01.(화)
		담 당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
	총 1페이지	연락처	726-7407

제목 :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제주문화상징물의 실용화 단계 제시-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유덕상)에서는 2009년 기본과제로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제주문화상징』(제주특별자치도, 2008)을 토대로 해서 활용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제주문화상징물 99선의 의의와 문화산업의 가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화, 실용화가 가능한가를 단기와 중장기 사업 기획안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다.

□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연분야와 사회 및 생활분야에서는 중분류로 묶어서 한라산을 포괄하는 화산박물관, 제주마산업(제주마박물관, 승마코스 등), 제주의 아름다운 내창 지정 보호 사업, 신영주십경으로 변환, 제주흑우와 흑소의 인증화, 전통음식박물관(빙떡, 자리회, 오메기술, 고소리술, 목국 등의 현대화) 등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제주의 정신문화로 볼 수 있는 켄당문화를 하나의 문화관으로 다룰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역사, 신앙·예술 분야는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공연예술, 축제, 영상·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콘텐츠의 활용 사례를 들었고, <제주걸궁, 오돌또기>를 새로운 활용 사례로 들었다.

□ 보고서는 제주도 전통지식자원의 소유권 확보 방안, 디지털 이미지화, 홈페이지개발, 홍보코너 제작, 상품 개발 지원 등 실현 가능한 사업안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